

80년대 시문학의 도도한 물결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② 《금강》에서 《노동의 새벽》까지

80년대는 시의 시대다. 시대의 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한 민중시가 만개한 시기이다. 이때 산출된 작품들에 대해 '문학성'을 문제삼는 이들이 없지 않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경쟁하듯이 시심(詩心)을 분출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 만했다. 박노해로 상징되는 80년대 시문학의 도도한 물결은 <금강>에서 발원한다.

신동엽과 김수영

한국펜클럽 작가기금의 지원을 받고 씌어진 장편서사시 <금강>은 《한국현대신작전집·5》(을유문화사, 1967)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금강>은 발표되자마자 문단에 큰 반향을 불러오지만, 2년후 시인의 죽음과 함께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다. 시인의 불같은 시혼이 되살아난 것은 유신의 폭압이 절정으로 치달던 70년대 중반, 《신동엽전집》(창작과비평사, 1975)을 통해서다.

《아사녀》(문학사, 1963)가 생전에 유일하게 펴낸 시집인 까닭에 '전집'은 민족시인의 치열한 시세계를 통째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저항정신이 충일하고 동포애가 넘치는 장관(壯觀)을 '권력'이 그냥 내버려둘 리 만무. 출간 직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판매 금지되면서 '전집'의 수난은 시작된다. 85년 어렵사리 개정정보판이 나온 뒤에도 시대의 격랑에 부대끼며, 출판사와 운명을 함께하며 '잠행'을 계속한다.

뜻있는 이들 사이에선 신동엽 시인이 민족문학의 지주로 추앙받았으며 실질적인 복권은 87년 6월 항쟁 후에 이뤄진다. 신동엽은 남·월북 작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셈이다. 부인 인병선 여사가 꼭꼭 숨겨왔던 그의 유작 두권이 책으로 세상에 나온 것은 6월 항쟁 이듬해. 미발표 산문집 《젊은 시인의 사랑》(실천문학사, 1988)과 미발표 시집 《꽃같이 그대 쓰러진》(실천문학사, 1988)으로 부활을 거듭한다.

<금강>에 대한 평가는 "시의 진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김우창)와 "전례적인 시대화일 수는 있어도 역사적 개성이 확산되지는 못했다"(김주연)로 엇갈리지만, 동학농민혁명에서 4·19에 이르는 민중의 저항사를 형상화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제는 <금강>(창작과비평사, 1989)을 단행본으



윗줄 왼쪽부터 신동엽·김수영·신경림·김지하씨.

로 만날 수 있다.

80년대 '시의 바다'에 물꼬를 터준 또 다른 지류는 김수영 시인. 그의 전집이 80년대 벽두에 발간된 것은 공교롭다. 두권짜리 《김수영전집》(민음사, 1981)은 《달나라의 장관》(춘조사, 1959) 말고는 개인시집을 갖지 못했던 김수영 시인의 전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관. 여러권의 선집과 여기저기 지면에 실린 작품을 한데 모아 정본을 만드는 수고는 시인의 누이 김수명이 맡았다. '전집'의 인세로 김수영문학상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는 마를 줄 모르는 '지맥 속의 분수'다.

신동엽과 김수영의 치열한 시정신은 김지하 시인에게 이어져 활짝 꽃핀다. 신동엽의 민족주의와 김수영의 모더니즘을 울곧게 이어받은 김지하는 70년대를 그의 시대로 만들면서 80년대의 밑그림을 훌륭하게 그려낸다.

'항토'와 '오적'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거나 이 시대를 어중간한 시간(새벽 두 시)로 파악하는 시인의 명민한 상황인식은 오히려 사족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는 1970년에 이미 신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해, 그는 첫 시집 《항토》(한얼문고, 1970)를 펴냈고, <오적>을 썼다. 김지하의 처녀시집은 목숨이 긴

책이다. 한얼문고판은 금방 스러졌지만, 《타는 목마름으로》(창작과비평사, 1982)에 세를 살다가, 풀빛판화시선에 새 등지를 든다. 풀빛(1984)의 《항토》는 3만부 정도 팔렸다. 지금은 출판사(1995)에서 나온 것이 유통 중이다.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꼭 이렇게 쓰라'로 시작하는 <오적>은 판소리 양식을 채용한 담시. 동빙고동의 이른바 '도둑놈촌'을 소재로 쓴 이 작품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예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학관이라 이름하는, 간쟁이 부어 남산만 하고 목질기 동탁 배꼽 같은 천하홍폭 오적의 소굴이었다."

시인은 오적들을 한자의 음을 빌려 들짐승으로 풍자했는데, 장성은 '長猩'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김지하 시인의 한문실력은 일석 이회승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한학에 도저한가"라는 칭찬을 들었을 정도였다. 체포와 구금을 밥먹듯 반복하고, 70년대 후반에는 내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김지하의 작품은 그가 출소한 다음에야 햇빛을 볼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필사본을 통해 김지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축일 수 있었다.

70년대 못지않게 암담했던 80년대 전반기,

김지하의 책들은 '홍행보증수표'로 떠오른다. 앞서 언급한 시집들이 판금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읽혔으며, 시인의 강연을 정리한 김지하 이야기모음 《밥》(분도출판사, 1984)은 베스트셀러가 된다. 17인 신작시집 《마침내 시인이여》(창작과비평사, 1984)도 김지하 시인의 덕을 토틈히 본 경우.

"《다라니》는 유신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김지하 시인의 작품이다. 신홍사 폭력사건을 풍자한 까닭에 승려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셌다"고 시집을 엮었던 이시영 시인은 말한다. 5만부 정도 팔린 이 시집은 일본어로 옮겨지기도 했다(靑木書店, 1984). 그해 2월 12일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고, 정권은 제한적이거나 일련의 자율화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하다 보니, 84년말에서 85년초까지 김지하 시인의 책이 쏟아져 나온다. 《민중의 노래 민중의 노래》《오적》(이상 동광출판사), 《생명으로 쓰는 시》(산하), 《남녘땅 뱃노래》(두레) 등. 이 가운데 《생명으로 쓰는 시》에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이 책은 시·희곡·평론·수기 등으로 이뤄진 선집이나,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출판물. 당시 막 출판을 시작한 산하출판사가 이름이 같은 탓에 애꿎은 오해를 받았다고 소병훈 사장은 기억을 되새긴다.

남미의 나라들은 시인을 외교관으로 임명

일원화공급
도서목록
1996

일원화공급
회원사 도서목록
1995

저희
출판사들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하여
一元化供給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의 판매, 배송, 수급, 재고 및 서점의 일괄관리

일원화공급 회원사

계명문화사

과학과예술

광문각

교육산업

국학자료원

(새미)

기술

도서출판 나랏

(대웅출판사)

(창작수필사)

높은 오름

대광문화사

(한국시사)

대동문화사

대륙연구소

대운

大典書籍

(중권서적)

대정진

대원사

동인

문화과학사

민족문화

비로교육

백이정

(서광학술자료사)

배명사

보고사

보문당

복두출판사

사상사

(하나미디어, 백두)

사회문화연구소

사회평론

서울경영컨설팅

서울프레스

성군관출판부

세종출판사

신서원

신지서원

신한종합연구소

아침

아카데미아

양문각

어문학사

엘맨

(크리스찬하우스)

오늘의문학사

오름시스템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우등불

유림문화사

음악예술사

이희문화사

일월서각

전통문화연구회

전파과학사

정문출판사

정훈출판사

좋은인연

침달

창조사

청목출판사

청암미디어

(양영각)

태성출판사

태학사

학연문화사

(춘추가)

한국대학신문사

(엘리트뱅크)

한국문화사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한국적산연구소

한나래

한송

향학사

현대대학사

현대실학사

현대심구원

현상과인식

홍문관

화산문화

경남대출판부

경성대출판부

부산대출판부

부산외대출판부

울산대출판부

전주대출판부

한국의대출판부

우리 조합의 상세한 신간도서 자료는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고 있으며, 또한 신간도서 자료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주2회 PC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공급 거래문의(출판사·서점) TEL. 716-5616~9(106, 119)
도서주문 전용 FAX. 716-3819, 3820, 2995

80년대는 시의 시대다.

시대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한

민중시가 만개했다. 유신의 폭압

속에 시혼이 되살아난 신동엽,

80년대 '시의 바다'에 물꼬를 튼

김수영,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풍자한

<오적>의 김지하 등 시문학의

도도한 물결이 80년대에

흘러넘쳤다.

하는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시인을 볼모로 삼아 감옥에 가둔다. 김지하 시인이 자유의 몸이 되기도 전에 김남주 시인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김남주 시인이 나오고 얼마 안있어 박노해를 가둔다.

김남주, 그리고 박노해

《진혼가》(청사, 1984)는 김남주 문학의 생성기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김남주 문학의 본령은 88년 가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이뤄졌다. 그것들이 출소 후에야 책으로 묶여진 만큼, 본격적인 김남주 논의는 후일을 기약해야겠다.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공》이 70년대의 '돌풍, 그 자체'라면 80년대의 돌풍은 단연 《노동의 새벽》(풀빛, 1984)이다. 이 시집은 언론과 평론가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서 '치식인 문학'의 위기를 유포하고, 새로운 민족문학을 추동하는 씨앗이 된다.

“사랑은 갈라섬,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

사랑은 고통, 참혹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괴로운 노동자의 길

(《사랑》일부)”

이라고 노래하는 노동자 시인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소외된 노동자의 감성을 문학으로 탁월하게 승화시켰다. 70년대 조합주의적인 글쓰기를 뛰어넘어 노동해방의 글쓰기를 일궈냈다.

박노해 시인은 '사노맹'의 '수괴'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시는 진한 서정성이 배어 있는 작품으로 읽힌다(조영복, 《문학정신》1996·겨울). 《노동의 새벽》을 둘러싼 80년대의 인식은 《박노해 현상》(등에, 1989)이 좋은 참고가 된다.

‘창비시선’ 대 ‘문지시선’

70~80년대 한국시의 흐름은 동인지가 주도했다. 동인지의 범주를 뛰어넘는 양대산맥인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부터 ‘반시’ ‘오월시’ ‘시와경제’까지. 기성 시인들은 자기 색깔에 맞는 곳을 찾아, 신인들은 자기 ‘고향’을 따라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였다. 주목할 만한 시집들은 몇몇 출판사의 시선 시리즈를 통해 선보였는데, ‘창비시선’과 ‘문지시선’이 대표적이다.

창비시선은 《농무》(신경림, 1975)를 필두로 《국토》(조태일), 《한국의 아이》(황명걸), 《만월》(이시영), 《저문 강에 삼을 씻고》(정희성) 등이 대표적인 초창기 시집들이고, 문지시선은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황동규, 1978)를 선두로 《안보이는 사랑의 나라》(마종기), 《나는 별아저씨》(정형중), 《동두천》(김명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등이 손꼽힌다.

신경림 시인은 첫시집을 통해서 지금 연극배우 전무송이 빼어나게 재현하고 있는 ‘서림’을 맞보기로 보여준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치들 무어하랴’(《농무》에서). 황지우 시인 또한 첫시집에서 일갈한다. ‘잘 들어라, 지금/잘 먹고/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잘 먹음과 잘 삶이 다 혐의적이다’(《같은 위도 위에서》 일부)라고.

뛰어난 시집이라도 첫시집은 독자의 손길이 미처 닿기 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신동엽과 김수영이 그렇고, 김지하와 신경림의 첫시집도 처음에는 소박한 호응을 얻었을 뿐이다. 정희성 시인도 여기에 속하는데, 새 봄에는 소문으로만 들던 《담청》(샘터사, 1974)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포에지 2001’ (문학동네)을 통해 선보일 《담청》은 강남에서 돌아올 제비만큼 반가운 손님이야.

— 최성일 기자